헤비급복서와 갓난아기의 맷집비교

(고후11:16~33)

16.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헤비급복서와 갓난아기의 맷집비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헤비급 복서와 갓난아기의 맷집비교!

사실 비교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비교가 되겠지요.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말 연약한 주먹으로도 갓난아기 같은 경우, 뭐 몇 번의 타격만으로도 그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을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헤비급 복서들의 그 주먹, 그런 주먹을 맞고도 견뎌내지 않습니까?
뭐 갓난아기가 아니라, 우리같이 성인들도 보통 사람들, 헤비급 복서한테 한 번 맞으면, 얼굴 같은데, 머리 같은데 맞으면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 2월에 영국에서 헤비급 빅 매치가 있었습니다.
데이빗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야구선수 중에서 이름이 있는 거 같아요.
세계적인 복싱계의 주먹을 집중시키던 선수입니다.
무패행진을 계속하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헤비급 WBO세계 챔피언이 타이슨 퓨리 아닙니까? 이 타이슨 퓨리와의 챔피언 도전전을 앞에 두고, 그 도전자로서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닥다리 식으로 그냥 한 번 거치는 그런 게임을 한다고 해서, 누구를 데려왔냐 하면, 토니 톰슨이라는 나이 많은 한 물 간 복싱선수를 골라서 게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토니 톰슨 이 나이 많은 한 물 간 복서에게, 무패행진을 자랑하던 데이빗 프라이스가, 챔피언과의 도전전을 앞두고, 사닥다리로 징검다리로 하나 그냥 선택해서 치룬 이 경기에서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이 흥행사들과, 프로모터가 완전히 맨붕 상태에 빠졌다 그래요.
이거 뭐 있을 수도 없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데이빗 프라이스가 맷집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토니 톰슨이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다 늙은 복서이고, 데이빗 프라이스는 정말 엄청난 지금 일어나는 신예인데, 몇 대를 때렸겠어요?
근데 어차피 이 복싱이라는 게 치고받는 게임이기 때문에, 백 대 때리다가도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대 맞는 카운터펀치를 견뎌 낼 수 없으면, 어쩌다가 얻어 걸린 펀치이지마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더군다나 헤비급 선수들의 게임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맷집이라는 거예요, 맷집.
맷집이 뭡니까?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안에서 이겨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먹을 쥐고 육체와 육체의 대결이 외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내부적으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이겨 내는 내성과 기질이 있어야 이런 격투기에서 살아남고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맷집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를 꼽지요, 훌륭한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량과 펀치력과 그 다음에 맷집입니다.
맷집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거 뭐 어쩌다가 한 방 얻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보니까 무의식중에 휘두르는 주먹에도 얻어맞더라고요.
꼭 겨냥해서 때린 주먹뿐만이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휘두른, 자기가 공격하면서 들어갔는데 방어하는 선수가 방어하면서 눈감고 휘두른 주먹에도 맞아서, 그냥 KO 당하는 그런 것이 격투기이기 때문에 맷집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갓난아기와 헤비급 복서의 맷집은 누가 더 셀까요?
헤비급 복서가 셉니다.
근데, 인생을 두고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 어린 아기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 아기가 돼서 갓난아기처럼 된 사람들, 우리 어제 말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어린 아기처럼 돼가지고 대가라는 것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갓난아기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돌이킨 갓난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타격도 이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충격의 타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의 타격이 가해져도 이 사람들은 끄떡없습니다.
돌이켜 어린 아기가 된 자들, 돌이켜 갓난아기가 된 자들, 이들의 맷집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타격, 경제적인 타격, 건강상의 타격, 사람들이 비난하는 타격, 일의 실패의 타격, 어떤 타격이 주어져도 이를 쓰러뜨릴 수 없고, 이 맷집의 강도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픽픽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세상사의 충격들이, 이 맷집이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봄바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충격이, 봄바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기질, 그런 맷집, 이게 바로 신앙인의 특징이고 자랑이고 필수요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데서 사도바울이 ‘어리석게도 나도 한 번 육체를 따라서 자랑을 한 번 해 봐야겠다.’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는 것은 육체로 보이는 현상을 자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지마는, 고린도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사도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부추기는 근거들이, 대부분 육체의 자랑에 근거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좋다! 그럼 그들과 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지평 위에 한번 나 자신을 올려놔 보겠다.’
‘육체의 자랑의 무대에 나도 한 번 뛰어 들어가 보겠다,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서로 자랑하면서 경기를 하는 사각의 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각의 링에 먼저 올라가 있는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은,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하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해 놓고, 지금 고린도교인들이 용납하는 이 거짓사도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육체에 근거 된 자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바로 거짓 사도들의 겉으로 들어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 앞에서 드러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러니까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잡아먹고 빼앗고' 한다는 얘기는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거짓 사도들 자기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서 고린도교회 내에서 아~무런 거침없이, 그 자기들의 편익을 위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강력하게.
마치 부흥사들이 부흥회로 인도하러 와서, 담임목사한테 양복 사드리라고, 담임목사님한테 잘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막~ 담임 목사님에게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잘 섬기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모습.
또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는 얘기는, 모욕적인 언사를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뺨을 친다는 얘기는, 실지로 거짓 사도들이 뺨을 쳤겠습니까?
근데 뺨을 친다는 이 행동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행한다는 얘기에요, 굴욕감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다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욕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강단에서.
그리고 무당도, 신통할수록 반말 짓거리 합니다.
'에이~ 썩을 것,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너희 집에 화가 끊이질 않지, 에이~ 망할 것아' 뭐 이런 식으로…
이래야 신통함의 권위가 더 강하게 부각 되는 거같이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강단에서 막~ 욕을 하면서, 이 망할 것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고, 헌금을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해?!
이렇게 막 모욕적인 언사를 쓰면, 괜히 막 권위가 더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이게 고린도교회에서 연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욕하면서 설교하면 권위가 더 사는 줄 아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도.
특히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게 그대로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의 권위.

거지같은 카리스마에요, 그러니까.
가장된 권위를 가지고 연출된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고린도교회가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진짜 사도로서의 권위가 저런 거구나라고 인정을 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좀 자랑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거짓 사도들이 막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무례히 행동하고, 마치 주인이 종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대하는, 그런 식의 강력함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참, 거기에 비하면 약한 사람이다. 근데 약한 모습 그대로 나도 담대하게 주눅들 필요가 없이… 내가 너희가 겉으로 볼 때 약한 모습이지만, 너희에게 언제 큰소리 한 번 쳤냐, 강하게 나가본 적이 있냐, 나한테 신수비 내라고 내가 강력하게 요청해 본 적이 있냐, 빼앗은 적이 있냐, 언제나 내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하고 우유부단해 보이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나 내가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은 나도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자랑을 하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거짓사도들처럼, 요즘 유명하다는 부흥사님들 중에 더러 그런 분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무례히 행하는 카리스마, 강력하게 교회의 재정을 자기가 막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이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대쪽으로 나가는데, 뭘 자랑하느냐 하면 약한 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약한 걸 자랑한다고 하면서 말한 것이 뭐냐 하면,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이니까 그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에서 그들도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러고, 사도바울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그 높으신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교인들 앞에서 무례히 행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사도바울은 어떻게 자랑하느냐?
그냥 기가 막힙니다!
이 사도바울의 자랑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태장으로 수없이 맞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매가 어떤 매인지 다 압니다.
태장으로 맞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말꼬리로 만든 채찍 끝에 쇠붙이를 갈고리 모양으로 달아 가지고 맨살 드러나게 해 갖고 채찍으로 휘감으면 그 쇠꼬챙이가 살에 박힐 때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사람 같으면, 일생에 단 한번 당해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사도바울의 이 사역의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자랑할까요?
거짓 사도들처럼, 교회 안에 가장된 권위를 가지고,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띄고, 거침없이 돈을 요구하고, 재정을 갖다 쓰고 마치 주인이 종에게 대하듯이 무례히 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막 쓰면서… 이처럼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왜 이렇게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을 뻔한, 약한 사람들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됨을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날 거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기대했던 모든 그런 기대가 사도바울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왜 이런 걸 자랑 안 할까요?
이런 걸 자랑하게 되면 사도바울이 올라갑니다.
마치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이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실 때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기적을 행할 때 당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인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추앙해버립니다, 그래서 만류하신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평생에 단 한 번 당해도 보통사람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
사도바울이 2000년 전에, 헐벗고 못자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어떻게 이러면서 사람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삶이 가능하지를 않아요, 보통 우리들에게는.
한 번 태장으로 맞으면 회복 기간이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늘 맞고 다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도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과 기질이 사도바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타격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가해져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타격 중에 강한 타격인 죽음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죽음이라는 타격을 가해도 죽지 않으시는 맷집을 갖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사도바울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요,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타격에 대해서 강한 내성이 생기고 모~든 타격을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어떻게 약해졌습니까, 사도바울이.
스테반을 죽이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해서 가던 그 사울의 모습과 약한 모습, 이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강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약했습니다.
왜 약해졌습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라고 자기를 인정해버렸습니다.
팔에, 손에, 발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이 들어오고, 매를 맞아 온 살갗이 찢어진 그런 상태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갓난아기와 똑같은 상태로 된 겁니다.
그렇게 갓난아기와 똑같은 상태로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타격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안 되도 타격을 받는 것이고, 사기를 당해도 타격을 받는 것이고, 건강에 이상이 와도 타격을 받는 것이고, 자식의 일이 안 되도 마음에 충격이 주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갓난아기가 돼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살을 떨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에게 일어난 일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고, 사업의 실패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엄살을 떨면서 미리 죽어버립니다.
항상 갓난아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갓난아기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마음이 100% 쏟아지면서 아기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힌 자로서 손과 발 꼼짝 못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썼기 때문에 머리를 돌리고 쓸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적으로 100% 임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될 때에, 이 세상 그 어떤 충격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내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감옥문이 열린다든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의 실현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점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쪽은 자랑하지 않고, 당한 쪽으로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한 번만 당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점철되는 과정 중에 내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내가 자랑할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내가 나로서 있었다면, 한 번의 고난으로도 나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타격이 얼

마겠습니까? 정신적인 타격이.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점철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아직도 주님의 사역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내 자랑거리인데, 내가 갓난아기처럼 약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결국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다!’ 라고 지금 자랑을 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능력을 발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자녀의 일이 안됐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이때, 이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떠날 때에, 십자가에서 어린 아기로 돌이킴으로써 이걸 이겨내는 것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건강도 좋아요? 자식도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대해 죽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으로 모셔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 때 얻을 수 있는 충격, 어떻게 돼요? 돈에 흡수돼 버립니다.
일이 잘 될 때, 이 세상의 성공에 우리가 취해 버립니다.
이것도 충격이에요, 없지는 것만 충격이 아니에요.
이 충격에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 임하는 충격, 우로 임하는 충격, 모두를 다 십자가를 통해 갓난아기가 됨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사지가 못 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씀으로써,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갓난아기가 되어서, 삶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삶이 됨으로써, 헤비급 복서보다 강한 맷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